

그리스도의 쌍둥이가 되어

빌립보서 2 장 1 절-13 절

2020 년 9 월 27 일

쌍둥이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중의 한 사람입니다. 제 동생이 먼저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22 년 가까이, 저랑 거의 똑같이 생긴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었습니다. 너무 똑같아서 저희 어머니가 알아보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학교 갔다오면, 다녀왔습니다. 인사하면, 누구야? 건삼이야 건정이야? 아마도, 그 때, 여러분이 두 사람을 만났다고 하며는 혼동하실 겁니다. 너무 비슷해서.

쌍둥이들이 얼마나 서로 비슷한 지를 알아보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네소타 대학에서 오래 전에, 쌍둥이가 태어나자마자 서로 떨어져 살면서 자라난 402 쌍의 쌍둥이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1919 년에 시작해서 반세기에 걸쳐 조사해 보았는데,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402 쌍의 쌍둥이들이 서로 비슷한 점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 쌍둥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태어나면서 헤어졌다가 40 년 후에 만났는데, 두사람이 모두 경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공일, 그림그리기 등 취미 생활도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의 이름도 똑같았습니다. 결혼 한 후에, 첫번째 아들의 이름을 제임스 앨랜라고 두 사람이 똑같이 지었다고 합니다. 강아지 이름도 똑같이 “토이” 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놀랍지요? 생김새도 비슷하고, 아이큐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하고, 글씨체도 비슷하다는 사실도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어릴 적에, 제 쌍둥이 동생이 무슨 일 때문이든지, 울며는 저도 따라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서로 많이 닮기도 했지만, 생각 느낌 취미도 많이 비슷했습니다.

오늘 바울사도의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쌍둥이가 되어 살아라 라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믿는 자들은 누구인가? 성도는 누구인가? 구원받은 자들은 누구인가? 질문을 한다면, 오늘 말씀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대답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2000 여년 전에 태어난 그리스도와 떨어져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쌍둥이로 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바울 사도는 이 질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겸손한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쌍둥이는 겸손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한 남편이 아내에게 어느 날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가만히 보니까, 핸드백 안에, 내 사진을 늘 가지고 다니고 일하는 데도 가지고 다니고 다니는 데, 왜 그러는거야?” 아내가 대답하기를,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당신 사진을 꺼내 보며는 문제가 안개처럼 사라지지.”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듣고 의기 양양하여서 말하기를, “내가 얼마나 당신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지 제대로 알고 있군!” 아내의 말이, “맞아요, 당신 얼굴 사진을 보고 자신에게 말하지요, “이 문제덩어리보다 더 큰 문제가 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인가?”

“잘 익은 벼 이삭일수록 더 깊이 내리 숙인다” 북한에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남한에서는, “벼 이삭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남한 이나 북한이나, 겸손은 모두가 추구해야 할 아름다운 덕입니다.

잠언을 요즘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 겸손에 관하여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잠언 15:33)

겸손한 자와 함께 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6:19)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잠언 18:12)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잠언 29:23)

신약 성경에서도, 겸손을 여러차례 강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6)

젊은 자들아 ...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5-6)

신앙의 선배들도 겸손을 강조했습니다.

겸손 겸손 겸손 강조한 성 어거스틴은, “천사를 악마로 만드는 것은 교만이고, 사람을 천사로 만드는 것은 겸손이다.” 라고 했습니다. 소금이 모든 음식에 필요하듯이, 겸손이 모든 선 중에 필요하다.

그리스도와 같이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겁니까?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3 절 말씀에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

남을 자기 보다 낮추어 보는 것이 아니고 높혀 보는 것이 겸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남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능동적인 자세가 겸손의 자세입니다.

이 세상이 경쟁 사회입니다. 어릴 적부터, 남보다 공부 잘해야 한다고 교육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라고 요구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자식자상에,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다 머리가 되겠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모두가 사장이고 부장이라면 생산사원과 운전기사는 누가 합니까? 모두 대학 나오고 시장, 구청장, 국회의원이 되려고 한다면, 누가 집을 짓고, 도로청소 하고, 나무를 키우고, 콩나물을 키웁니까?

운동 시합을 보아도 그렇지요? 결승전에서 챔피언은 이등 보다 굵이나 상금을 많이 받습니다. 신문에도 사진이 신문에 대문짝 만하게 올라옵니다. 이등이나 삼등 사등, 물론 꼴등은 이름도 제대로 안 나옵니다. 챔피언이 된 운동 팀은 세상에 크게 알려 집니다. 동료들 보다 위에 올라 서야 합니다, 회사에서도, 직장에서, 승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경쟁 사회에서 살다보니까, 남을 누르고 이기지 않으면 안되고, 남보다 더 잘하지 않으면 실패라고 여기는 세상 풍조에 빠져 있으니, 남을, 오늘 말씀처럼, 나보다 낮게, 나보다 높게 생각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봐 줍니다. 시기가 생기지요. 배가 아프지요.

이런 우리들에게,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그리스도의 쌍둥이가 되어 살면서, 남을 낮추어 보지 말고, 높혀 보라고 하십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인종차별 문제로 여기 저기 대 도시에서, 데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미국 사회의 문제입니다. 미국에 이민 온 백인들이 먼저, 미 원주민들의 땅을 빼앗고, 그들을 내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노예로 데리고 와서,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폭력적인 역사의 잔재가 아직도 21 세기에 남아 있습니다.

인종 차별이 왜 생깁니까? 백인 우월주의 사상이 시발입니다. 백인이 모든 다른 피부를 가진 사람들보다 우월해서, 그들을 지배해야 한다는 사상입니다. 참 끔찍한 사상입니다.

왜 차별합니까? 피부가 다르다고 낮추어 보기 때문입니다. 종교가 다르다고, 언어가 다르다고, 문화가 다르다고, 종족이 다르다고, 남들을 얕보고, 깔보고, 짓누르는 기 때문이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나이가 적다고, 나이가 많다고, 돈이 없다고, 교육을 못 받았다고, 남들을 누르고, 얕보고, 짓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언 기자는, 14 장 31 절.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사람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라고 하셨는데, 무슨 이유이든간에,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깔보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겸손한 사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람들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이웃들을 우러러 보는 사람입니다.

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누구에게든지 배울 점이 있다고 하지요? 맞습니다.

어린아이에게서도, 물론 나이드신 분들에게서도, 선배에게서도, 후배에게서도, 부모에게서도 자식에게서도 배울 점이 있습니다. 남이 나보다 나아서, 나에게 가르쳐 줄 것이라고 믿고, 존경하며 배우는 것이 겸손한 삶입니다.

영어로 존경한다 라는 말이, Re- Spect 라고 합니다. Re 하고 spect 두 단어가 붙어서 Re-spect. 다시 본다가 합친 말입니다. 다시 본다. 무시한다.. 안 본다는 뜻입니다. 존경한다 다시 본다는 뜻입니다.

욕존선겸 欲尊先謙 존경을 받고 싶으면 먼저 겸손하라. 라는 사자 성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욕존 선존 “존경 받고 싶으면 먼저 존경하여라.” 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남을 높이고, 칭찬하고 존중할 때에, 자기도 높임을 받고, 칭찬을 받고 존중을 받게 됩니다. 남을 존경하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쌍둥이 동생의 마음이고,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두번째로, 4 절 말씀에, “4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라”
남을 나보다 높히 여기는 것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는 것이 겸손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6 절부터 11 절까지의 말씀에서, 초대 교회 찬송가 가사 소개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들의 일을 돌아보아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섬김의 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서로 발을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섬기며 살아가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웬디 햄버거 가게 아시죠? 웬디 창설자가 데이브 토마스라는 분이었습니다. 이 분의 삶이 참
아름답습니다. 부모를 잃고, 입양되어서, 어린 시절 살았다고 합니다. 가난으로 인해서, 고등학교
교육도 정식을 받지 못하고 졸업도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분이 자서전에, 당신은 고등학교 졸업
자격 시험 통과 하기 전에, 엠비에이를 땀다고 적었습니다.

자신의 사진을 책에다가, 엠비에이 옷차림을 소개하였습니다. 무릎까지 내려오는 앞치마를 두르고
서있는 옷차림입니다. 이 분이 말하는 엠비에이는,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 석사가
아니고, Mop Bucket Attitude. 걸레 양동이 자세의 약자라고 합니다.

양동이 걸레 들고, 청소하면서 손님들을 맞이 하는 자세를 잃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손님들에게
시중을 들겠다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웬디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섬기고 시중 드는 삶. 봉사하는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섬기는 삶을 사신 것이 아니고, 지상 사역하시면서,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만나시고, 찾아가셨습니다. 약자들을 돌보시고, 찾아가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눌린 자들을 찾아가서 기쁨을 주셨습니다. 병자들을 찾아가셔서 고치셨습니다. 귀신에 들려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시어,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으로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쌍둥이 사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I don't care . 관심 없습니다 뒤돌아 설 때에 우리는 I care.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절 12 절 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 뿐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어 나가라.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칭의함을 받고, 거듭난 존재가 되어 사는 것이 구원의 삶입니다. 그런데 거듭 난 존재들은, 거듭 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거듭 난 후의 삶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을 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태어난 아이가 발육하지 않으면,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 성장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듭 난 여러분과 저는, 구원 받은 여러분과 저는, 이제 구원을 이루어나가야 합니다. 이루어나가지 않으면, 성장 성숙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길이 하나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품고, 남을 섬기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가정의 표어 가운데는 "봉사하기 위하여 구원받았다"(Saved to serve)란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처럼 섬기기 위해 구원 받았습니다. 섬김을 모르는 삶은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삶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고침받은 것은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자유함 받은 것은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은,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어떤 이는 “인생은 테니스 경기와 같다. 서브(섬김)를 잘 하지 않고는 이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서브는 경기의 승패를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테크닉입니다. 서브 하나로 많은 점수를 거둬들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로 서브를 잘 해야 합니다. 인생은 섬김을 잘 해야 합니다. 잘 섬기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잘 섬기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잘 섬기는 사람이,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닮아,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건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쌍둥이로 사는 사람입니다.

씨 에스 루이스는 겸손은 “자기 자신을 별볼일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너무 초점을 두지 않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humility is not thinking less of yourself; it is thinking of yourself less.”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쌍둥이로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겸손, “남들을 별볼일 없다고 하는 것 아니고, 남들에게 초점을 더욱 두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humility is not thinking less of others, it is thinking of others more.”

우리가 관심을 갖고 찾아가야 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찾아가 발을 씻어 주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무쪼록,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살아감으로, 구원을 이루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볼뿐만 아니라, 남의 일도 돌아보는 그리스도의 쌍둥이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